

-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

사업 운영점검을 위한 베트남·캄보디아 출장 결과보고

◇ 교육 현장점검과 전북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한국어 교육의 질적 내실화 및 전북 기반의 민간교류 활성화 기반 도모

I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25. 6. 30.(월) ~ 7. 6.(일) <5박 7일>
- 출 장 지 : 베트남(나트랑·하노이) 및 캄보디아(프놈펜)

연번	국가(지역명)	운영기관	비고
1	베트남(나트랑)	전주대학교	신규('25년~)
2	베트남(하노이)	(사)전북베트남교류증진협의회	기존('18년~)
3	캄보디아(프놈펜)	원광보건대학교	신규('25년~)

- 출 장 자 : 교류협력실 송기택 실장, 국제진흥팀 백청하 대리
- 주요내용

1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현황 현장점검

- '25년 상반기 교육 운영현황 점검 및 하반기 운영계획 관련 논의, 교육환경 및 시설 답사, 수업 참관, 도내 유학생 유치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등

2 전북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수강생 및 일반인 전북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 제고, 신규 개소 지역 대상 민간교류 기반 마련

II 주요내용

1 주요일정

연번	국가(지역명)	방문일정	방문장소	운영기관
1	베트남(나트랑)	7.1.(화)	태평양 대학교	전주대학교
2	베트남(하노이)	7.2.(수)~7.3.(목)	노동사회대학교	(사)전북베트남교류증진협의회
		7.3.(목)	하노이 한국어교육원	-
3	캄보디아(프놈펜)	7.4.(금)	전북은행	-
		7.4.(금)~7.5.(토)	왕립 프놈펜 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 베트남 나트랑·캄보디아 새만금 한글학당 방문 시, 운영기관인 전주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와의 현장 동행 및 공동 일정 추진

② 신규·기존지역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현황 점검

- 참석자 : 지역별 사업 관계자(국내·외 총괄 담당자 및 현지 교원 등)
- 주요내용

구분	국가(지역명)	점검내용
상반기 운영현황	베트남(나트랑)	초급반 30명, 중급반 15명
	베트남(하노이)	대면 초급반 1명, 중급반 4명 비대면 초급반 32명, 중급반 4명
	캄보디아(프놈펜)	주말반 13명, 온라인반 8명
하반기 운영계획	베트남(나트랑)	수강생 추가 모집 예정
	베트남(하노이)	하노이 내 이동시간이 1~2시간인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교육 확대 예정
	캄보디아(프놈펜)	8월 이후 개설반 대상 수강생 모집 홍보 확대 예정
유학생 유치	베트남(나트랑)	'26 9월 입학 노력
	베트남(하노이)	'26. 3월 입학 노력
	캄보디아(프놈펜)	대사관을 통한 비자 신청 중 다수의 거절사례 발생, 최근 유학 비자 발급이 부분적으로 재개되어 '26년 유학생 유치 목표로 준비 중

③ 신규·기존지역 새만금 한글학당 수업 참관

- 참석자 : 지역별 수강생 및 교육 희망자
- 주요내용

국가(지역명)	추진대상	점검내용
베트남(나트랑)	초·중급반 수강생 45명	현지 강사 활용(호남대학교 유학)
베트남(하노이)	중급반 수강생 및 교육 희망자 12명	현지 강사 활용(현지 대학 한국학과 졸업)
캄보디아(프놈펜)	주말반 수강생 및 교육 희망자 14명	현지 강사 활용(서강대학교 유학) 드림 한국어 교재 고도화 제안

④ 신규·기존지역 전북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참석자 : 지역별 수강생 및 현지 주민, 사업 관계자 등

국가(지역명)	추진대상	추진내용
베트남(나트랑)	(1차) 수강생 및 현지주민 90여명 (2차) 수강생 20여명	현판 제막식, 태평양대-진흥원-전주대 3자 업무협약, 전북 문화체험 프로그램, (전주대) 전통놀이 체험, K-food 체험
베트남(하노이)	수강생 및 현지주민 90여명	전북 문화체험 프로그램
캄보디아(프놈펜)	(1차) 수강생 및 현지주민 50여명 (2차) 수강생 30여명	전북 문화체험 프로그램, (원광보건대) 유학 설명회, 미용 봉사, 안경 봉사

5 하노이 한국어교육원 업무협의

- 참 석 자 : 국립한밭대학교 김영록 교수
- ※ 하노이 지역 내 한국어 교육 현황 및 유학생 유치 수요 파악을 위한 현지 교육기관과의 업무협의 추가 진행
- 주요내용
 - (한국어교육원 운영현황) 한밭대학교는 연간 연수생 150명, 대학원생 50명 규모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으며, 목표 교육 시간은 총 400시간으로 설정하여(토픽 2급 수준) 하루 최소 4시간~6시간씩 3~4개월 운영함. 하노이 지역특성상 유학생들은 선진국(미국 등) 진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지방 중심의 수강생 모집이 필요함. 또한 현지 인력 및 물적 자원 제약으로 인해 대면수업보다는 온라인 수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유학생 유치) 한국어 교육 시간이 400시간 미만으로 축소될 경우, 유학 이후 기본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교육내용이 한국어 일반 교육(학습)과 토픽 시험 대비 중심 교육(유학) 간 구분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유학생의 주요 목적은 '합법적인 한국 입국'이며, 최종 목표는 '취업'에 있음

6 캄보디아 전복은행(PPC Bank) 업무협의

- 참 석 자 : 이진규 부행장, 홍정환 영업기획부 선임부장
- ※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 측 일정 변경으로 인해 전복은행과의 업무협의로 대체 진행
- 주요내용
 - (캄보디아 상황) 총 인구 약 1700만 명 중 수도 프놈펜 거주에 약 4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도시화율이 낮은 편이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생이 약 10만 명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비자 상황) 대사관을 통한 비자 발급의 경우 다수의 거절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자의 대부분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한 해 7~8천명 입국 중이고, 유학비자 발급은 제한적인 상황이라 향후 광역형 비자 또는 요양보호사 비자 등 새로운 비자 유형 발굴 및 선제적 역할을 통한 전략이 요구됨
 - (유학생 유치) 선문대학교에 '25. 3월 17명 입학, 전북대학교도 소수 인원이 입학함

III 사업평가

□ 운영현황

국가 (지역명)	운영기관	구분	주요내용
베트남 (나트랑)	전주대학교	문화체험	- 자체적으로 현판 제막식, 업무협약, 전통놀이 체험, K-food 체험 등을 연계하여 행사 당일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함 - 전주대학교-태평양 대학교 간 소통 및 협력체계가 잘 구축됨
		수업참관	- 2학기 개설반의 경우, 1학기에 비해 수강생 추가 모집이 필요하며, 교육 내용의 질적 보완도 일부 요구됨
베트남 (하노이)	(사)전북베트남 교류증진협의회	문화체험	- 교육계획상 응우옌 짜이 대학교가 교육장소이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집합 금지 조치로 노동사회대학교에서 대체 진행함 - 민간단체가 주도의 운영으로 현지 대학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어, 제한적인 형태의 행사가 이루어짐(에어컨 미설치 강의실 이용, 현수막 설치 제한, 한복 문화체험 런웨이 시 복도 공간 활용 등) - 수강생(중급반 4명)을 제외한 체험 인원 대부분을 외부에서 별도로 모집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 프로그램 운영에 일부 애로 사항이 있었음
		수업참관	- 하노이 지역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대면 수강생 인원이 3개 학당 중 가장 저조하여 대면 모집이 어려울 시 비대면 추가 모집이 요구됨
캄보디아 (프놈펜)	원광보건대학교	문화체험	- 유학설명회 이외 원광보건대학교 학생 및 교수진이 참여하여 미용 봉사, 안경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원광보건대학교와 CKCC 간 사전 소통 부족으로 행사 당일 참여자 집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에 따라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함
		수업참관	- 전체 중급반으로 구성되어 전반적으로 난이도 있는 수업이 진행되며, 수강생 참여율도 높았으나 계획 대비 적은 인원으로 2학기 추가 모집이 필요함

□ 주요성과

○ (운영기관 협력 강화)

- 전주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등 운영기관 현장 동행 및 공동일정 추진
- 전북 문화체험 프로그램(한지공예·한복체험)을 중심으로 전통놀이· K-food 체험, 미용·안경 봉사 등 체험 영역을 확장하여 참여자 모두에게 다채롭고 몰입도 높은 콘텐츠 제공 및 만족도 향상

○ (전북 인지도 및 문화가치 제고)

- 현지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양질의 한지공예와 한복 체험을 통해 전북의 전통문화 품격과 정체성을 전달함
- 특히 단순 체험을 넘어 한복 런웨이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참여자는 한복을 직접 입고 전통의 자태와 아름다움을 표현해볼 수 있었으며, 관람객에게는 전북 전통문화의 미감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국내 운영기관-현지 운영기관 간 소통 강화 필요)

- 캄보디아 새만금 한글학당 방문 당시, 원광보건대학교와 왕립 프놈펜 대학교 간 사전 소통 부족으로 인해 행사 당일 참여자 집결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됨

▣ 향후 국내 운영기관과 현지 운영기관 간 세부 일정,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긴밀한 사전 조율 및 지속적 협의체계 구축이 필요함

○ (전문기관 중심의 한글학당 운영 필요)

- 민간단체가 주도해 운영하는 하노이 새만금 한글학당의 경우, 현지 대학과의 공식 MOU 체결이 어렵고, 교육장소 확보 등 기반시설 마련이 미흡하여 안정적인 교육 운영에 제약이 발생함

▣ 현지 대학과의 실질적 파트너십 구축 및 교육 품질 확보를 위해 도내 대학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사업을 운영하고, 유학생 유지부터 취업 연계까지 단계별 실행체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IV 사진자료



(베트남 나트랑) 현판 제막식 및 업무협약



(베트남 나트랑) 수업 참관



(베트남 나트랑) 전북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베트남 하노이) 전북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베트남 하노이) 수업 참관



(베트남 하노이) 하노이 한국어교육원 업무협약



(캄보디아) 전북은행 업무협약



(캄보디아) 전북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캄보디아) 수업 참관

언론사명	주요내용	링크
한겨레	<p>전북국제협력진흥원, 베트남·캄보디아서 한국 문화 체험 사업 진행</p> <p>전경석 기자 수정 2025-07-06 15:31 등록 2025-07-06 14:53</p> <p>기사를 읽어드립니다 2:29 ▶</p>  <p>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베트남 나방과 하노이, 캄보디아 등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진흥원 제공</p>	<p>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206867.html</p>
세계일보	<p>전북국제협력진흥원, 베트남·캄보디아서 새만금 한글학당 문화체험 성료</p> <p>입력 2025-07-07 16:26:57, 수정 2025-07-07 16:28:46</p> <p>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 현지에서 운영 중인 새만금 한글학당을 찾아 전통문화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p> 	<p>https://www.segye.com/newsView/20250707513560?Ourl=naver</p>
투데이안	<p>전북국제협력진흥원 새만금 한글학당, 베트남·캄보디아서 전북 문화 알리기</p> <p>A 열병화 기자 @ 승인 2025.07.07 10:14</p> 	<p>https://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580358</p>
네이트 뉴스	<p>전북국제협력진흥원, 베트남·캄보디아서 새만금 한글학당 문화체험 성료</p> <p>세계일보 원문 · 기사전송 2025-07-07 16:29</p> <p>AI정보 요약</p> <p>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 현지에서 운영 중인 새만금 한글학당을 찾아 전통문화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p> 	<p>https://news.nate.com/view/20250707n26697</p>

